

“예술로 기억되는 오월, 세계로 확산되길 기원”

김중분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5대 단장

음악 통해 민주·인권 정신알려 여성 항쟁 기록집 편찬에 참여

“아이들이 연주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타고 광주의 청소년들이 세계로 날아가 오월의 정신을 더 널리 전하길 바랍니다.”

김중분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5대 단장(67)은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오월의 의미를 예술로 전달, 다음 세대가 ‘오월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길 희망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1980년 동덕여대 총학생회 활동 중 ‘서울의 봄’을 경험한 김 단장은 그해 광주항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해남으로 내려가 농민운동, 여성운동에 앞장섰고 해남군의원과

전남도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오케스트라 단장, 공동체라디오에서 여성 이슈 음악방송 ‘젠도살롱’의 DJ로 활약 중이다.

김 단장은 해남과 광주 여성들의 항쟁 기록집 편찬에도 참여했다. 2002년 ‘해남 민중항쟁동지회’를 만들고 2010년에는 구술사료집 ‘땅끝 해남에서 타오른 오월 항쟁’을, 2019년에는 ‘5·18 기억과 역사 9편’을 펴냈다.

김 단장은 “그 시절 감옥에서 보낸 시간과 청춘의 고민이 나를 전남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서울역에서 해산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갔더라면 광주가 그렇게 고립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그날의 선택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단장이 이끄는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다. 매년 3월 단원을 모집해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며 연말에는 발표회를 연다. 아이들은 다양한 곡을 배



우고 광주의 역사적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 악기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배운다.

김중분 단장은 “처음엔 바이올린이 몇

저 보여서 오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하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며 “광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의 감수성을 지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을 찍은 김 단장은 올해도 새로운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오후 5시18분, 광장에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 합주했고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며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오월정신의 가장 단단한 전승자”라며 “예술로 기억되는 오월이야말로 가장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전승 방식이다. 음악뿐 아니라 미술,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오는 16일 오후 5시 18분 전남대학교 정문 5·18사적지 야외무대에서 ‘오월, 첫동네 희망을 노래하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김호범 GIST 교수 ‘젊은 과학자상’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신소재공학과 김호범(사진) 교수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PIERS 2025’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젊은 과학자상은 전자기학 및 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만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김호범 교수는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의 결함 제어 기술을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해 고효율·고안정성 광전자소자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태양전지, 발광소자(LED), 광검출기 등 다양한 광전자 응용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최환준 기자



도농상생운동본부, 농촌사랑 체험행사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13일 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강진군 녹향월촌마을에서 전남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약 400만원 상당의 쌀 요리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에서 꿈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NH농협은행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곡성 마량초등학교 학생 16명과 교직원 10명이 참여했으며, 차상훈 전남농협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일정은 꼬마김밥 만들기 체험과 쏙인절미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다.

차상훈 전남농협노조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음식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농촌 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광주 동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교실

광주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석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개최했다. 교실에 참여한 서석초 6학년 36명은 의장과 의원,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을 맡아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과정을 경험했다.

본시손님

△이근배씨(전남대학교 총장) △조진형씨(〃 글로벌대의협력처장) △문규식씨(〃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장)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 2000만원 쾌척

서구 아너스 3호 회원 ‘나눔’

광주 서구 취약계층 등 지원

광주 서구는 최무진(오른쪽) ㈜나눔테크 대표이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사랑의열매를 통해 2,000만원의 성금을 서구에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구청 1층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김이강 서구청장,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따뜻한 성금은 지역 내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12달이 행복한 서구’ 실현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테크 최무진 대표는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아동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서구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 아너스’ 3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5년간 1억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한 등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나눔테크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생명을 살리는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따뜻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무진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희망과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는 기업이 되겠다”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의 변함없는 따뜻한 기부와 나눔의 손길은 지역 사회에 큰 감동과 따뜻한 힘이 된다”며 “최 대표의 선한 영향력이 나눔의 연대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광주시체육회, 체육인에 안전인문교육

송창영 광주대 교수 특강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2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2025 광주체육인 스포츠안전 인문학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시체육회 부회장), 구체육회, 종목단체, 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강연을 맡은 송창영 교수는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실천적 인식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후 위기와 도시 첨단화, 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스포츠 현장도 신종·복합재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체육인 스스로가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선제적 안전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갑수 회장은 “스포츠 현장에서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교육이 체육인 모두에게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전매게시판

알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기본반 3개월(토/12회) 성인병 예방·치료, 가족주치의. 문의 뜰사랑 광주교육원 062-521-3999, 010-4642-4779.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10-8602-0001.

△광주시 전남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 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대 노인학대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무료상담&주간프로그램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 자살 우울 문제 등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노후를 돕는 사람들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

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로 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마루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 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 교육정서지원 문화체험 석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 062-522-9976.